기도하기 좋은 지장도량 - 완주 송광사

4대 지장기도 도량 송광사는 신라 경문왕 7년(867)에 보조체징 선사가 창건한 선종의 대표적 사찰이다.

"미안하고 미안합니다… 지장보살님"

일주문 앞이 어수선하다. 거센 겨울바람에 쓸려온 낙엽들이 어지럽게 들락거리고, 요란한 풍경(風磬) 소리가 들려온다. 봄날 이었다면 연분홍의 꽃비를 맞으며 걸었을 벚나무 길을 꽃비 대신 칼바람을 맞으며 걷고 나자 일주문 하나가 나타났다. 전북 완주군 소양면 대흥리. 종남산 송광사다. 서산 개심사, 철원 심원사, 고창 선운사와 함께 4대 지장도량으로 불리는 도량이다.

송광에 가면

송광사의 일주문은 깊은 산길의 끝에서 만나는 일주문이 아니다. 고개만 조금 들면 보이고, 발만 조금 떼면 건너갈 수 있는 '옆집'의 대문이다. 마을의 여러 대문 중의 하나처럼 보였다. 송광사 일주문엔 흔치 않게 여닫는 문이 달려 있었다. 하지만 '열고 닫기' 위한 문이란 생각은 들지 않는다. 법당문 같다. 닫혔어도 열린 문일 테고, 열렸어도 닫힌 문일 문이었다. 법당에 드는 마음으로 일주문 안으로 들었다. 그래도 성불하지 못한 중생에게 '경계'는 경계였다. 문은 문이었다. 한 발짝 안에 '문'이 있었다.

산문 밖에서 찬바람에 휩쓸리던 낙엽들이 산문 안으로 쓸려오고, 산문에 들었던 낙엽들이 산문 밖으로 쓸려 나간다. 다시 찬바람이 요란하게 일자 산문 밖에서 들었던 풍경소리가 다시 들려온다. 쓸려 들어오고 쓸려 나가는 낙엽들과 안과 밖이 한 가지인 풍경소리가 조금 전 한 발짝 안에서 잃어버린 마음의 정체를 궁금하게 했다.

일주문을 지나자 금강문이다. 금강문은 인왕문(仁王門)이라고도 부른다. 양쪽에는 손으로 권법을 짓거나 금강저 또는 칼, 창을 손에 든 금강역사를 모셨다. 금강과 같은 단단한 지혜로 번뇌를 부수고 깨달음의 세계로 들어오라는 뜻의 문이다. 쉽게 지나갈 수 없는 문이다. 앞서간 발자국들이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금강문을 지나면 천왕문이다. 천왕문에 모신 소조사천왕상(보물 제1255호)은 조선 인조 2년(1624)에 만든 것으로, 흙으로 빚은 사천왕상 중 가장 오래 되었다.

천왕문을 지나면 대웅전(보물 제1243호)이 보인다. 대웅전은 조선 인조 14년(1636)에 벽암국사가 짓고, 철종 8년(1857)에 제봉선사가 불사를 더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대웅전에는 석가여래부처님을 주불로 모시고 우측에 아미타부처님, 좌측에 약사부처님을 각각 소조(흙으로 빚어)로 모셨다. 전각 안에 모셔진 부처님으로서는 규모가 매우 크다.

송광사의 역사

송광사는 신라 경문왕 7년(867)에 보조체징 선사가 창건한 선종의 대표적 사찰이다. 옛 이름은 백련사였다. 고려시대 보조국사 지눌 스님이 송광사로 바꾸었다. 가람의 규모가 방대하여 일주문이 3km 떨어진 곳에 있었다고 한다. 임진왜란으로 폐찰이 되었다가 광해군 14년(1622)에 중창을 시작하여 인조 때 회향했다. 인조는 병자호란 때 청나라로 끌려간 소현세자와 봉림대군(효종)의 무사 환국과 국난의 아픔을 불력으로 치유하고자 호국원찰로 삼았다. 그리고 당대의 최고 승병 대장인 벽암각성 대사와 160여 명의 승려를 머물게 하여 거국적인 복원불사를 이루고 불사 후 선종대가람사라는 사호를 내렸다. 송광사는 석가화현이라고 불린 진묵대선사가 오래 주석하면서 많은 이적을 보인 곳이며, 국가위난이나 기도감응시에는 대웅전, 나한전, 지장전 불상이 땀을 흘렸다고 한다.

대웅전 옆으로 지장전과 나한전이 있다. 마당 한편에는 아(亞)자 형 종각이 있다.

"성불하지 않겠나이다"

"지옥이 텅 비지 않으면 성불하지 않겠나이다. 일체의 중생이 모두 제도되면 그때 깨달음을 이루겠나이다." 지장보살이 석가모니부처님 앞에서 서원했다.

송광사는 지장도량이다. 지장전에 10왕과 함께 지장보살을 모셨다. 지장보살은 석가여래의 부촉을 받아 늘 중생의 근기를 살피며, 석가여래가 입멸한 뒤부터 미륵불이 출현할 때까지 천상에서 지옥까지의 일체 중생을 교화하는 보살이다. 특히 지장보살은 지옥에서 고통 받는 중생들 모두가 빠짐없이 성불하기 전에는 자신도 결코 성불하지 않을 것을 맹세했다. 그러나 모든 중생의 성불은 기약할 수 없는 것이므로 지장보살은 사실상 성불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 중생들이 지장보살에 기대는 이유는 다른 보살들에 의지하는 이유와 조금 다른 점들이 있다. 지장보살이 다른 보살과 다른 점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 세상의 모든 중생은 전생의 업에 의해 윤회한다. 누구든지 업보에 의한 과보는 피해갈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불교의 업보사상이 지장보살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지장보살은 정해진 업보도 모두 소멸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장보살에게 귀의하면 악도를 벗어나 천상락을 얻을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장보살이 지옥의 중생을 구제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장보살의 자비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일찍부터 지장보살에 대한 신앙이 일어났다. 특히 지옥에 떨어질 것을 걱정하는 후손들에 의해서 지장보살은 널리 신봉되었다. 즉 현실의 죄나 고통을 없애주는 보살로서는 관음보살이 으뜸이라면, 죽은 뒤의 육도윤회나 지옥에 떨어지는 고통을 구제해 주는 것에는 지장보살이 으뜸인 것이다.

지장전 안으로 햇살이 스며든다. 매서운 칼바람도 요란하게 들려오던 풍경소리도 이리저리 휩쓸려다니던 낙엽들의 모습도 아득히 멀어져 간다. 지장보살의 안쓰러운 시선 끝에 누군가 앉아 있다. 지장보살, 언젠가는 그의 앞에 서야 하리. 지옥문을 지키고 있는 그의 앞에 서야 하리. 그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그의 서원 앞에 미안한 마음으로 서야 하리. 송광사가 아니더라도 지장보살 앞에 설 일이 있다면 미안하고 또 미안한 마음으로 서야 할 것이다. 누군가가 앉았던 빈자리에 다시 보살의 시선이 머문다. 지장보살이 지키고 있는 곳이 지옥이라면 조금 전 지장보살 앞에 앉았던 이는 지옥문을 보고 간 것일까. 칼바람이 지장전 문살을 흔들어댄다.

다시 일주문이다. 여전히 어수선하다. 미안한 마음으로 바라보았던 보살의 모습이 기억나지 않는다. 찬바람에 뒹구는 낙엽과 요란한 풍경소리만이 다가온다. 지옥문 앞을 다녀왔는데도 여전히 중생의 경계는 어쩔 수 없다.

완주 송광사=박재완 기자

지장전에 모신 지장보살상

4대 지장도량인 송광사 전경

주변보기

〈사찰〉

▲**위봉사** / 완주군 소양면 대흥리 21번지 / (063)-243-7657

위봉사는 추줄산에 자리하고 있는 고찰이다. 고려 말 나옹 스님께서 중건하시고 조선 세조때는 선석, 석잠 두 스님이 중수했으며, 조선시대 말엽 포련대사의 중수가 있었다. 1912년에는 전국 31본산 중의 하나로 전북 일원의 50여 말사를 관할하기도 했으나 해방 후 6.25한국전쟁을 거치면서 급속히 퇴락했다. 폐사 직전인 1988년 현재의 주지 법중 스님이 도량정비를 시작하여 퇴락한 보광명전과 관음전을 보수하고 100여칸의 불사를 이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오늘날 전북을 대표하는 비구니 선원이자 포교의 전당으로 그 역사의 장을 새롭게 열고 있다.

〈가볼만한 곳〉

▲**대둔산** / 완주군 운주면 산북리 611-34

금남정맥 줄기가 만경평야를 굽어보면서 솟구쳐 절경을 이루는 곳이다. 대둔산은 한듬산을 한자화한 이름으로 한은 크다는 뜻이며 듬은 두메, 더미 덩이의 뜻을 일러 큰두메산, 큰덩이의 산을 뜻하나 이제는 사시사철 등산객이 붐비는 도립공원으로 변해있다. 우뚝 솟은 봉우리마다 독특한 형상이 담긴 대둔산은 잘 다듬어진 조각품에 분재의 군락을 보는 것 같은 수석의 보고이다. 올려보든 내려보든 시선이 멈추는 곳은 모두가 아름답고 좌우로 보면 볼수록 신비하고 웅장해서 입을 벌린 채 산수화 병풍 속에 온 마음을 정좌하게 되는 곳이 대둔산이다. 흙보다는 돌멩이가 많은 산, 돌고 돌더라도 오르락내리락 하기보다는 가파른 비탈길이 심한 곳이다. 이래서 대둔산을 호남의 금강산이라고 격찬한다.

▲**고산자연휴양림** / 완주군 고산면 휴양림로 246번지 / (063)263-8680

고산면 오산리에 위치한 고산자연휴양림은 삼림욕을 즐길 수 있는 사계절 가족휴양지다. 낙엽송, 잣나무, 리기다 등이 빽빽이 들어선 조림지와 활엽수, 기암절벽 등이 어우러져 호젓한 휴식을 취하기에 더없이 좋은 곳이다. 봄에는 철쭉, 산벚과 같은 각종 야생화가 만발하여 꽃의 제전을 펼치는가 하면 여름에는 울창한 숲과 계곡을 따라 흐르는 맑고 시원한 물이 무더위를 식혀준다. 가을에는 온 산을 덮은 단풍들이 보는 이의 감탄을 자아내게 하고 겨울에는 설경이 놓칠 수 없는 구경거리다.

〈숙박〉

-거인산촌생태마을펜션 / 완주군 동상면 신월리 430 / 063-245-6611

송광사 부근에는 숙박시설이 별로 없다. 약 30분 거리에 있는 전주 시내의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식당〉

-몽펠리에 레스토랑 / (063) 254-6300
-송광순두부 / (063) 244-7445 순두부 요리
-송광산장 / (063) 243-8154 묵은지매운탕